

2010 ASEM 대학평가 · 인증 국제세미나 「ASEM 대학평가인증기관 간 상호교류 활성화 방안」

김정희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가기획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아셈듀오 장학재단의 후원으로 2010년 10월 22일(금) 오후 1시부터 5시40분까지 서울교육문화회관 본관 2층 가야금홀에서 “ASEM 대학평가인증기관 간 상호교류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2010 ASEM 대학평가인증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ASEM(Asia-Europe Meeting) 역내 대학평가·인증제도의 상호이해도 모와 아시아-유럽 고등교육기관 간 상호협력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날 국제세미나는 성태제 대교협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유럽지역 고등교육 질 보증 네트워크(ENQA)의 Fiona Crozier 부회장, 일본 독립행정법인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NIAD-UE)의 Shin-ichi Hirano 기구장(전 나고야 대학 총장), 중국 교육부 고등교육평가원(HEEC)의 Ji Ping 주임(원장), 한국 대교협(KCUE) 이영호 대학평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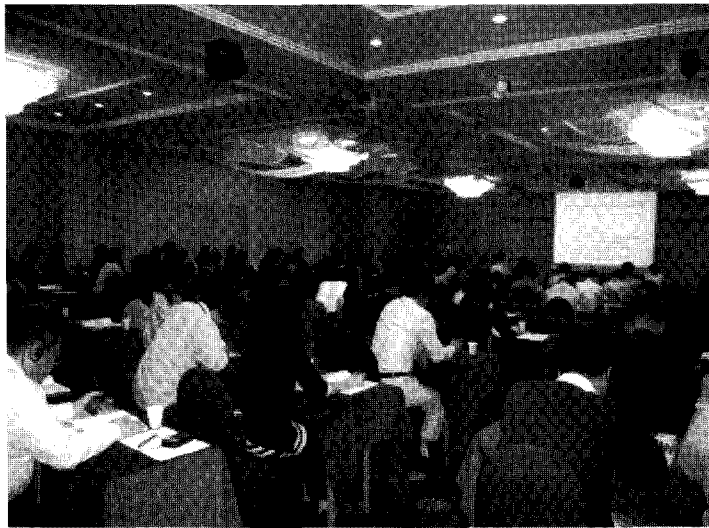
장이 “ASEM 대학평가인증기관 간 상호교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국가별 평가·인증 사례(Good Practice)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한유경 교수가 좌장으로 국제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대학평가관계자, 평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대학평가인증기관 간 상호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열띤 논의의 장이 되었다.

성태제 사무총장(한·중·일 고등교육교류협력 전문가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미래 세계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시점에서 경쟁의 차원을 뛰어 넘어 상호 협력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전 인류의 번영을 위한 국가 간, 대학 간의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며 대학들은 첫째, 인간의 삶과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둘째, 인류의 문화 창달을 위한

예술문화, 셋째, 세계인들의 건강을 위한 레저와 운동, 넷째, 미래 산업사회를 선도할 산업분야 전문가 육성, 다섯째, 세계 국가의 공동선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Fiona Crozier(ENQA : European Association for Quality Assurance in Higher

Education) 부회장은 “유럽 고등교육 권역(EHEA)의 질 보장”이라는 발표에서, ENQA는 네트워크 형태로 2000년에 설립이 되었고, 2004년에 협회로서의 모습을 갖추었다는 ENQA 설립배경과 정착과정을 설명하였다. 특히, 고등교육 질 보장에 대한 협력 측면에서 ENQA가 정보 공유 및 상호 학습, 모범 사례 개발, 프로젝트 및 공동의 질 보장 절차



에서의 협력 강화 등에서 공헌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유럽의 고등교육에서 교류 증진을 위한 질 보장 방법으로 자격인증 강화, 고등 프로그램의 이행 및 인정 개선, 교류 프로그램의 적격성을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Shin-ichi Hirano 일본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NIAD-UE : National Institution for Academic Degrees and University Evaluation) 기구장은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의 개요”라는 발표에서, NIAD-UE가 수행하는 기

능과 역할 즉, 대학 등의 교육·연구활동의 상황에 관한 평가(인증평가), 국립대학 교육·연구활동에 관한 평가, 학교교육법에 의거하는 학위의 수여, 대학평가 및 학위수여에 관련하는 조사 연구, 대학평가 및 학습의 기회에 관한 정보의 수집·정리·제공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평가·인증의 기대효과로 대학 내 기본적 정보의 수집, 정리, 공유화와 자체평가를 통한 자기 평가력의 증진, 지적사항에 대한 대학의 특성이 명확해지고 개선에 도움이 되어 결국에는 대학교육에 개선에 활용도가 높다고 주장하였다.

Ji Ping 중국 고등교육평가원(HEEC : Higher Education Evaluation Center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주임은 “중국 고등교육 질적 수준 보장체계 구축 개황”이라는 발표에서 중국 정부는 빠른 규모의 경제 성장 후의 고등교육 수준의 보장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면서, 고등교육 수준을 보장 및 향상시키기 위해 엄격한 대학 설립 제도의 도입, 수준 높은 대학을 위한 985 프로젝트, 211 프로젝트, 고등교육 기관 학부교육의 질적 수준과 교학 개혁 프로젝트, 주기적인 평가와 질적 수준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 구축 등을 시행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현재 중국에서는 학부교육의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해 교육기관에 따라 평가 모델과 방법의 개선을 하고, 대학원생 교육의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세분된 학위 수여 기준과 규범화된 평가 절차 등의 개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중국의 평가동향을 제시하였다.

이영호 대교협(KCUE) 대학평가원장은 “KCUE 고등교육의 질 보증 체제와 방향”이라는 발표에서, 고등교육 질을 제고하고, 대학의 책무성을 다하기 위해 대교협이 지난 30여 동안 추진 해 온 대학종합평가인정제, 학문분야평가인정제,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 대학자체평가 활성화 지원 사업의 실시 등 평가사업을 추진 경과에 대한 개관을 시작으로, 새로운 대학평가·인증제 패러다임의 기본 방침을 제시하였다. 특히, 새로운 대학평가·인증제 패러다임에서는 정량적 평가보다는 선진화된 질적 평가, 정보공시 자료·2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는 대학자체평가·대학보유자료 등의 실제자료 중심평가를 통한 대학의 평가 부담 경감, 평가·인증 과정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의 발전과 특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실링 지향 평가, 대학의 특성이 반영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번 2010 ASEM 대학평가인증 국제세미나 개최는 아시아-유럽 간 학생·교수의 상호 학문 교류 증진과 대학 간 학점 인증 및 교류의 폭이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한·중·일 3국 사이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대학교육의 질 보증에 대한 아시아와 유럽 간 국제적 사례를 이해할 수 있고, 그 경험을 공유하며, 대학교육의 품질 제고의 새로운 방향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국제세미나는 “고등교육 교류 및 협력 강화”에 대한 한중일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Campus Asia 프로그램의 토대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대교협은 10월 22일 오전 11시 중국 HEEC와 MOU 체결을 통하여, 고등교육 질 보증 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지난 2010년 8월 19일에는 일본 NIAD-UE 와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한·중·일 3국 간 고등교육 질 보증 기관 간 상호협력과 교류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